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세부 개정방향

다음은 지난 12월 13일 엽곡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11층에서 개최된 「전기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제품안전과 이만찬 전기사무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세부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문을 발췌한 것이다. 전기용품제조업체, 전기용품수입업체 그리고 전기용품 유통업체 여러분의 많은 편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

□ 제도개선 배경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법령 개정

○ 주요 골자

- 형식구분별 형식승인 → 모델별 안전인증
- 정부의 형식승인 → 민간기관의 안전인증
- 벌금 및 과태료 강화

○ 세부 추진방법

- 안전인증대상 : 모델별 AC50~1000V이하로서 기본모델
다만, 파생모델은 안전인증서에 추가하거나 또는 파생모델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기본모델 : 최초로 인증받은 제1호의 모델
- 파생모델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모델
(즉, 기능추가·모양·상표변경 등) 또는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품 (변압기, 캐패시터, 온도조절기, 전동기 등)
- 안전인증신청(외국제조업자의 경우)

- 외국제조업자 → 국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자)로 법정대리인을 선정 → 인증신청 → 공장확인(제조, 검사설비, 기술능력 등)

- ※ 동일제품인 경우 공장확인 면제
- ※ 시험용시료 확인 : 인증기관

- 안전인증

- 국내제조업자 : 출고전
- 외국제조업자 : 통관전
- 기본모델에 파생모델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변경신청

- 사후관리

- 공장단위로 년1회 이상
- 제조업자는 자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 실시

- 상호 시험결과 인정

- 안전인증기관은 국내외 인증기관, 시험기관, 기업체의 자체 시험소등과 상호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ISO17025에 충족하는 기관

< 기타사항 >

- 종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신청은 2000. 6. 10일까지 신청가능
 - 형식승인 시험신청은 2000. 4. 30일까지 가능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현황을 임의로 선정한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한 형식승인모델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함
 - 종전의 기술기준 및 표시기준 적용

인플레이션없는 성장

글·김동근 전무 건흥전기(주)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상승(上昇)을 의미한다. 원래 통화의 증발(增發)에 따른 물가등귀(物價騰貴), 그 반동으로서의 화폐가치를 뜻하였다. 그 종류로는 초과수요로 일어나는 디맨드풀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 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데서 오는 물가상승이 되는 소위 수요 과잉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비 특히 임금코스트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있는데, 그냥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임금수준과 이에 수반되는 원료 등 생산원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또 무역을 통해 일어나는 수입 인플레이션(import inflation)이 있다.

또 속도면에서 물가가 느리면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크리핑 인플레이션(creeping inflation)이 있는데, 모르는 새에 서서히 다가온다고 해서 흔히 잠행성(潛行性)인플레이션이라고 번역된다. 그리고 구보하듯이 비교적 빨리 상승하는 갤로핑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이 있는데, 이는 급속히 진행하므로 급성 또는 분마성(奔馬性)인플레이션이라 칭한다.

끝으로 통화증발 등으로 급상승하는 하이퍼인플

레이션(hyper-inflation)이 있는데, 극도의 인플레이션 혹은 초(超)인플레이션으로 번역되고 물가가 급히 오르는 특성이 있으며, <끝없이 치솟는> 천정부지의 소위 악성인플레이션(runaway inflation)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인플레이셔너리갭(inflationary gap)이란 투자나 재정의 적자지출이나 수출초과의 합계액이, 완전고용 소득수준에 있어서의 계획된 저축의 총액을 넘을 때 그 차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갭이란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돌았을 때의 차(差)다. 이에 대하여 그 반대의 경우가 디플레이셔너리갭(deflationary gap)인데, 이는 유효수요 수준이 완전고용수준을 밑돌 때 발생한다.

케인즈가 《전쟁비용조달론(調達論)》에서 이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1941년 4월 영국의 재무장관이 예산연설에서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 1883~1946)는 통화 금융문제의 권위자로, 1936년에 출판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으로 새로이 케인즈학파(學派)를 형성하였다. 근대 경제학의 전개에 가장 기여한 경제학자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행사하여, 인플레이

선에 의한 화폐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세(稅)라 하는데, 인간은 화폐경제 속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항상 어떤 종류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화폐는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발행되어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록 그것을 정확하게 예상했는지라도 화폐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화폐보유로 인한 실질적 손실의 크기만큼, 저절로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의 소득이전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회계(會計)란 화폐가치의 변동이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것을 제거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가공이익의 출현과 재정상태표시의 변형 등을 시정하여 자본의 실질적인 유지를 꾀하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그 방법으로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현저한 경우, 자산의 재평가에 의하여 정부기록이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만약 변동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의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달러 가치법의 적용, 고정자

산의 가속상각(加速償却) 등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필요악인가? 그것을 사전에 저지할 수는 없는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成長), 이것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염원이다. 세계 경제 전체에 활력을 잃게 하고 혼란을 확대시킨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안정성장을 되찾은 상태를 지칭한다. 자유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79년에 이미 11.3%, '80년에는 13.5%라는 두 자리수의 인플레이션에 돌입했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레이건이 집권한 이후 금융의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내세워 드디어 과거 82년에 6.1%로 떨어뜨림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했다. 영국의 대처수상도 과감한 정책으로 18.0%까지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83년에 3.9%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죽어도 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전기 · 전자기술용어 순화

부도체 (순화용어 ; 절연체)

1. 전기 또는 열을 거의 전하지 못하는 물질.
2. 전도체나 소자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3. 전기전도를 위한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며, 물질의 에너지 준위대에서 금지대의 폭이 넓어 전자를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여기(勵起)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 물질을 절연 파괴시킬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물질.